

# 어휘집을 통해 본 조선시대 복식명칭 연구: 類解書를 중심으로

김은정\* · 강순제

가톨릭대학교 의류학전공 박사과정\* · 가톨릭대학교 의류학전공 교수

복식명칭은 복식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로써, 이에 대한 고찰은 많은 문헌 자료를 통해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는 「한자학습서에 기록된 복식용어의 시대적 의미변화에 관한 연구」에 이은 후속연구로서, 조선시대에 편찬된 유해류역학서인 《譯語類解》·《同文類解》·《蒙語類解》·《倭語類解》·《方言類釋》에 기록된 복식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들 類解書는 우리 복식어휘 뿐만 아니라 한어·만주어·왜어·몽고어의 복식어휘를 한자를 통해 이해할 수 있어, 조선시대 복식명칭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들 유해류역학서에 기록된 동일한 한자 복식명의 언해 차이를 살피고, 동일한 한글 복식명을 중심으로 한자 어휘 및 복식의 형태를 비교하여 유사점 및 차이점을 해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은 궁극적으로 우리 복식의 새로운 어휘 및 유사어를 발견하고, 우리 복식의 형태적 특징을 파악하여 조선시대 복식을 좀 더 명확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譯語類解》는 1690년(숙종16) 사역원에서 출판된 중국어·한국어 어휘집으로서, 1775년(영조51) 그 補卷이 편찬되었으며, 복식에 관련된 부분은 服飾, 梳洗, 織造, 裁縫이다. 《同文類解》는 1748년(영조24) 玄文桓에 의해 출판된 중국어·한국어·만주어 어휘집으로서,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현존하는 청학 관련 자료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며, 복식에 관련된 부분은 梳洗, 服飾, 布帛이다. 《蒙語類解》은 중국어·한국어·몽골어 어휘집으로서, 현존하는 것은 1790년(정조14)에 補卷이 첨가되어 중단된 것뿐인데, 복식과 관련된 부분은 梳洗, 服飾, 布帛이다. 《倭語類解》(1780년대초 추정)는 한자(한자어)를 표제어로 한 한국어·일본어의 어휘집으로, 복식과 관련된 부분은 梳洗, 服飾, 布帛, 彩色이다. 《方言類釋》은 1778년(정조2)에 이루어진

한어·한국어·만주어·몽골어·일본어의 다언어 학습용 어휘집으로서, 한학 역관 洪命福 등에 의해 저술되었는데, 복식에 관련된 부분은 服飾,

裁縫, 布帛, 紡織, 蠶桑이다.

類解書에 기록된 복식관련 부분을 쓰개, 신, 의복, 의복부위, 수식, 두식, 생활용품, 직물, 색 명칭으로 분류하여 비교,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동일한 한자명칭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類解書에 따라 언해된 내용이 각기 다른 복식명이 있었다. 이는 동일한 복식명이라 하더라도 나라에 따라 포괄했던 의미가 달랐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 또 ‘삿갓·널쿠’, ‘청·보선’, ‘햇옷·동옷·동돌지’같이 유사어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예) 帽子 : ‘감토’, ‘갓’, ‘모자’  
斗蓬 : ‘삿갓’, ‘널쿠’  
襪(了) : ‘청’, ‘보선’  
掛子 : ‘긴저구리’, ‘쿠리매’, ‘자근옷’  
襖子 : ‘햇옷’, ‘들씨’, ‘동옷’, ‘동돌지’  
金炭 : ‘금차할비단’, ‘쥬황’  
羅 : ‘깁’, ‘라’

2. 언해된 동일한 우리말 명칭을 중심으로 이에 해당하는 한자어를 비교 고찰한 결과 類解書에 따라 한자표기가 다른 명칭이 있었다. 이는 비록 언해가 같더라도 한자표기가 다른 경우에는 다각적인 복식명칭의 비교를 통해 복식 형태를 고찰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예) 감토 : ‘小帽子’, ‘帽子’, ‘頂帽子’, ‘氈帽’  
갓 : ‘大帽子’, ‘涼帽子’, ‘帽了’, ‘笠’, ‘帽了’  
너넬 : ‘暖襪了’, ‘皮襪頭’  
유삼 : ‘油衫’, ‘雨衣’  
바지 : ‘綿褲’, ‘褲了’, ‘袴’  
주사 : ‘縐紗’, ‘湖縐’, ‘走紗’, ‘縐紬’  
깁 : ‘綾’, ‘絹了’, ‘羅’

이상과 같이 유해서 별로 나타나는 언해된 복식명의 특징과 새로운 어휘 등을 고찰하여, 언해된 복식명 사이에서 유사어를 발견하였고, 유사어들의 해석 및 동일하게 언해된 나라별 복식의 형태비교를 통해 우리복식의 형태적 특징을 파악하여 조선시대 복식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